

		<h1>보도자료</h1>		<p>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합니다!</p>
보도일시	2021. 10. 5(화) 배포시			
배포일자	2021. 10. 5(화)	매 수	총 4 매	
배포부서	대외협력실	담당자	이창호 실장 (02)2179-1048) 권기호 차장 (02)2179-1228)	

진승호 KIC 사장, 마크롱 대통령 등과 기후변화 투자협력 논의 - 기후변화 국부펀드 협의체(OPSWF) 연차총회 참석

진승호 KIC 사장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글로벌 국부펀드, 자산 운용사 대표들과 함께 파리기후변화협약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투자공사(KIC)는 지난 4일 저녁(한국 시간)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기후변화 관련 국부펀드 협의체 OPSWF(One Planet Sovereign Wealth Funds) 연차총회 화상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존 케리 미국 기후 특사, 메리 샤피로 TCFD 사무국장, 마크 카니 전 영란은행 총재와 글로벌 국부펀드, 자산운용사 및 사모펀드 등 43개 기관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진승호 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기업공시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TCFD) 활성화와 개발도상국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 방안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OPSWF는 국부펀드들이 파리기후 변화 협약에 규정된 목표와 금융산업의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7년 12월 설립된 국부펀드 간 협의체이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회원기관 및 투자대상

기업, 위탁운용사 등이 이를 채택하도록 장려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무적 위험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KIC는 Bpifrance(프랑스), ADIA(UAE), NZSF(뉴질랜드) 등 다수의 해외 국부펀드들과 함께 OPSWF에 참여 중이며, 올해 연차총회에서 그리스 국부펀드 HCAP 등 4개 국부펀드들을 포함한 10곳의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신규로 합류했다.

4일 기준 OPSWF 회원기관들의 기금 규모는 총 36조 달러(한화 약 4경 27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진승호 사장은 연차총회에서 “KIC는 최근 책임투자팀을 신설하고 기후변화 모델 도입을 추진하는 등 향후 기대되는 ESG 중심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ESG 관련 혁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면서 향후 OPSWF 회원사들과의 협업을 통한 ESG 협력 확대와 그린 파트너십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다.

KIC는 지난해 11월 OPSWF에 가입한 뒤 ESG 평가 모델, 탄소 관련 데이터의 포트폴리오 적용 등 글로벌 국부펀드들과의 ESG 관련 파트너십을 확대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해 모든 투자자산 및 프로세스에 ESG 요인을 고려하는 ESG 통합체계(Integration)의 적용을 완료하고, 올해에는 투자배제 전략 도입과 ESG 전략펀드 확대 등 ESG 투자 혁신 노력을 지속 중이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와 탄소배출량 측정, 시나리오 설정 및 테스트 수행 등 기후변화 대응 모델을 개발해 올해 말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끝>

[첨부] ‘OPSWF 연차총회’ 보도사진 1부

문의처: 대외협력실 이창호 실장

Tel: (02)2179-1048, changho.lee@kic.go.kr

대외협력실 권기호 차장

Tel: (02)2179-1228, kiho.kwon@kic.go.kr

“KIC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kic.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첨부] 'OPSWF 연차총회' 보도사진 1부

